

1시간 이내 응급실 이용 서울 90%... 전남 51%

2022년 공공보건의료 통계

광주, 89%로 이용률 높은 편

전남 지역민 중 한 시간 이내에 응급실을 이용한 사람은 10명 중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최하위 비율로, 서울과 수도권에 90%를 기록한 것과는 그 격차가 컸다. 이밖에 중환자실, 산부인과, 응급의료센터 등 갖은 의료서비스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이 전국 평균 밑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응급실을 1시간 내 이용한 비율은 전남은 51.7%로 전국 평균 72.8%를 크게 밑돌았다.

수도권인 서울이 90.3%, 인천 86.7%, 경기도가 77.6%였던 반면, 전남을 비롯한 지방인 경북(53.4%), 강원(55.8%)의 의료이용률은 현저히 떨어졌다.

수도권 외에도 광주(89.2%)와 대구(91.1%), 부산(85.0%) 등 광역시는 기준시간내 응급실 의료이용률이 높은 편이었다.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은 해당지역 거주 환자의 총 의료이용량 중 기준시간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의료이용량의 백분율이다.

응급의료센터의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역시 수도권과 지방 간 차이가 컸다. 전남은 이 부문에서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준시간이 30분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서울은 89.9%, 인천 80.9%, 경기 68.8%였지만 전남은 32.5%, 경북 40.8%, 강원 44.0%였다.

기준시간이 90분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또한 서울 96.3%, 인천 95.6%, 경기지역은 92.4%였지만 전남은 50.2%, 강원은 60.1%, 전남은 60.4%였다.

ICU(중환자실) 이용률은 서울 93.3%, 인천 85.8%, 경기 78.3%였고 강원 45.7%, 충남 46.0%, 전남 46.1%였다.

'최종치료' 역할을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180분 내 의료이용률은 서울이 99.0%, 인천 98.3%, 경기도가 98.5%인데 비해 세종은 52.4%, 전남 52.2%, 경북은 59.5%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산부인과 60분 내 이용률은 서울이 95.6%로 최고, 강원 38.1%로 최저였으며 전남과 광주는 각각 52.2%, 88.7%를 기록했다.

소아청소년과 60분 내 의료이용률은 광주가 96.9%로 가장 높았고, 강원 44.0%로 가장 낮았다. 전남은 70.9%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전국 평균 78.2% 보다는 낮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낮 '무더위'·아침 저녁엔 '선선'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 30~33도

최저기온은 20도 초반까지 '뚝'

4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 광주·전남은 한낮에는 늦은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20도 초반까지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은 이번 주 동해북부해상의 고기압과 중국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다"고 3일 예보했다.

4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30~33도를 보이겠고 5일 아침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30~32도에 분포하겠다.

기상청은 4일 낮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서 5~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소나기가 내린 뒤 습도가 높아져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더운 날이 이어진다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이다.

이 같이 늦은 한낮 무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다 다음주부터는 점차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침은 서늘하고 낮은 무더위가 이어져 일교차가 점차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좁은 지역에서 전동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져 큰 일교차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이열치열'... 명품 숲에서 뜨거운 질주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8회 너릿재 옛길 마라톤대회가 2일 오전 화순군과 광주 동구를 잇는 너릿재 옛길 구간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초록의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너릿재 옛길 코스에서 힘차게 레이스에 나서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8회 너릿재 옛길 마라톤

전국에서 400여 명 참가

천혜의 힐링 코스 힘찬 레이스

아름다운 숲, 맑은 공기, 천혜의 코스를 뗏삼아 전국에서 참가한 400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질주 분능을 불태웠다. <관련기사 11·20면>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8회 너릿재 옛길 마라톤대회'가 지난 2일 화순군과 광주 동구를 잇는 너릿재 옛길 구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신정훈 국회의원, 주최측인 구북구 화순군수와 임택 광주 동구청장,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 등을 비롯해 마라토너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비가 예고되었음에도 지역 마라톤동호회는 물론 전북, 경남, 강원 등 전국 각지의 마라토너들이 대거 참석, 전국대회로서의 위상을 가늠케 했다.

화순군체육회와 마라톤세상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셀레브(옛 소아르갤러리) 입구에서 너릿재 옛길 주차장 반환지 4km 코스를 왕복해 달리는 너릿재 마라톤만의 주황 방식으로 진행됐다. 8km, 16km, 24km 등 3개 부문에서 경주하면서 남녀 우승자를 가렸다.

참가 선수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게 하는 험난한 코스에 비까지 내리는 상황에서도 청량한 기운을 뿜어내는 숲길의 매력에 빠져 '힐링 코스'를 완주하는 기쁨을 만끽했다. 특히 불발터위 탓에 한 차례 연기된 터라 아쉬웠던 마음을 풀어내기도 하듯 건강들의 움직임에는 활기가 넘쳤다.

혹서기 대회로 치르는 만큼 참가자들의 휴식을 위한 부스가 운영했으며, 의료인력을 곳곳에 배치해 부상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등 대회 운영진의 세심한 배려도 명품 대회 위상에 걸맞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너릿재 마라톤 대회는 전국 마라톤 애호가들에게 손꼽히는 여름 행사다. 화순에서 광주를 오가는 옛길의 풍광과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코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힐링 마라톤'으로 불린다. 특히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가 된 옛 광주일보 3·1마라톤 코스의 일부 구간을 복원한 것이며, 무더위 때문에 전국적으로 스포츠 대회가 드문 상황에서 열리는 이색 마라톤 행사이기도 하다.

광주일보사는 전 국민 스포츠인 마라톤을 활성화하고 지역 명소인 너릿재 옛길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 더불어 조국 광복을 위해 불굴의 의지를 실천한 선열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취지도 담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기독병원, 공공심아어린이병원 가보니 ▶6면
KIA 8연승 질주·광주FC, 1위 울산 격파 ▶18면
호남의 누정 - 광주 만취정 ▶22면

KIA 야구가 끝나면
YouTube 광주일보
TIGERS



The new EQE SUV

누구도 예상 못한 아우라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림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3.9(도상: 4, 고속도로: 3.7) 1회 충전거리(km) : 404, 공차중량(kg) : 2540, 배터리 용량(kWh) : 88.4
- EQE 500 4MATIC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3.8(도상: 3.9, 고속도로: 3.6) 1회 충전거리(km) : 401, 공차중량(kg) : 2510, 배터리 용량(kWh) :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출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